

8/24(월) 시편 묵상 10

시편 78:9-31

시편 78편은 역사를 통한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9-31절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역사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암시를 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언제 일어난 전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호 6: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북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보이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저버린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와 그들에게 보이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입니다(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시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문 12-16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또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과 바위 사이에서 물을 내사 그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보호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본문 23-29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주리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에서 살았던 그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삶의 필요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광야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신 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세례로, 만나를 신령한 음식(말씀)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을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고전 10:1-4,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역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거역했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했다고 말씀합니다(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행동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18-20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불같이 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기도 했습니다(21-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 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역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시인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조상들의 공과 사를 모두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정직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부모들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가족 모두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어른들의 가르침에 상처를 받고 신앙적 위선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신앙교육을 할 때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태일<미국>, 하영광<인도네시아>, 홍리브가<말레이시아>, 홍패밀리<키르기스스탄> 선교사님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